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정책세미나
**김만덕기념관 컨시جو볼극상 및
콘텐츠 개발전략**

일시 | 2013. 9. 13. 금 13:30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

주최 | (사)김만덕기념사업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3(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정책세미나

김만덕기념관 전시기보주상 및 콘텐츠 개발전략

일시 | 2013. 9. 13. 금 13:30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

주최 | (사)김만덕기념사업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순서

■ 개회식

14:00 ~ 14:20

전체진행 : 김 동 전(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

14:20 ~ 15:50

사회 : 김 현 숙(제주도립미술관 관장)

14:20 ~ 14:50 1. 김만덕기념관 전시콘텐츠 특성화 전략

유 동 환(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교수)

14:50 ~ 15:20 2. '세계 자선운동계의 거장들과 김만덕-그들은 어떻게 자선의리더가 됐나'

이 미 숙(문화일보 국제부 부장)

15:20 ~ 15:50 3. 김만덕 콘텐츠의 교육방안 전략연구

김 정 화(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휴 식

15:50 ~ 16:00

■ 종합토론

16:00 ~ 17:50

좌장 : 고 호 성(제주대 교수)

토론자 | 이 선 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성 명(국립제주박물관 관장)

이 은 숙(前 KOICA 지구촌체험관 관장)

허 영 선(김만덕기념사업회 홍보위원장)

김 동 전(제주대 교수)

김 태 일(제주대 교수)

■ 폐 회

18:00

목 차

1. 김만덕기념관 전시콘텐츠 특성화 전략 4

유 동 환(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교수)

2. ‘세계 자선운동계의 거장들과 김만덕 - 그들은 어떻게 자선의 리더가 됐나’ 25

이 미 숙(문화일보 국제부 부장)

3. 김만덕 콘텐츠의 교육방안 전략연구 37

김 정 화(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발 표

김만덕기념관 전시콘텐츠 특성화 전략

유 동 환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김만덕기념관 전시콘텐츠 특성화전략

- 장소, 소재, 경험, 컨셉, 스토리텔링



유동환 교수, Ph.D. philsm88@gmail.com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공간스토리텔링 전공, 창의산업연구소 소장

차 례

- I** 전시콘텐츠 개발과정
- II** 전시 소재 - 유형 및 무형정보
- III** 건립 조건 - 예산과 공간
- IV** 전시 요구 - 발주처와 관람자
- V** 남은 문제

I 전시콘텐츠 개발과정

최근 전시콘텐츠 구성요소 변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장르
기획 Plan	기획스토리텔링	공간스토리텔링 Space Story-telling	다매체 스토리텔링
서비스 Service	관리운영	쇼형태 서비스운영 Show up Service	관리운영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Brand Marketing	캐릭터
	식음료	식음료 Food & Drink	식음료
콘텐츠 Contents	문화상품	캐릭터상품 Character MD	캐릭터
	이벤트	축제 이벤트 Event-festival	공연이벤트
	공연	공연 Show-Performance	
	로봇	로봇 Robot	
	게임	게임 Game	쌍방향콘텐츠
	쌍방향	유비쿼터스 Ubiquitous	
	영상	미래영상 Future-film (아이맥스, 4D, 멀티, 옴니, 어트랙션 등)	
	모형	모형 Miniature(정지형, 동작형)	특수영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싸인, 배너 등)	
	조명 음향	유물의 진면목 살리기	
소프트웨어 S/W	네트워크	네트워크 Network & Computing	컴퓨터시스템
	시스템	관리시스템 Management System	
하드웨어 H/W	놀이시설	어트랙션 Attraction & Theater	체험시설
	공조시설	공조시설 Establishment	박물관전시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공간 Space	건축	특수건축 Animating Architecture	특수건축
	조경	조경 Landscape	

→ 미디어를 융합 흡수하는 공간(장소)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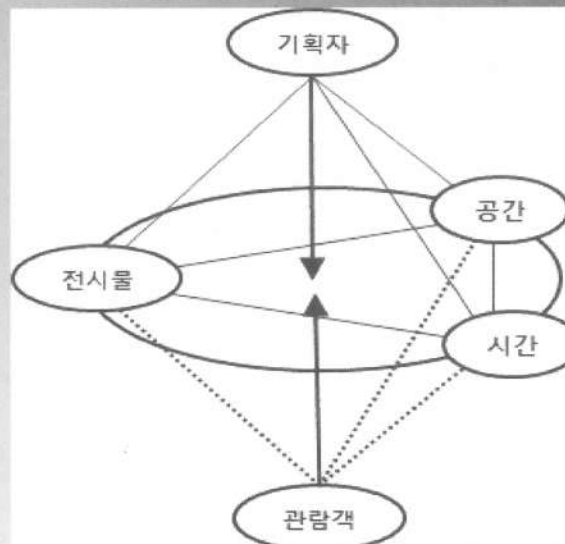
장소콘텐츠 기획과정

제작단계	단계별 Process	세부 Process
Development	요구분석 Requirement Analysis	투자자 요구, 미션, 타겟 욕망 Client, Target-user, Market 3 Key-factor Plan-Strategy, Proposal Schedule
	환경분석 Environment Analysis	입지 조건분석-법규분석 Environment / Nature, Social, Humanity
	조직구성 Crew Casting	기획-건축조경-마스터플랜-매체콘텐츠-서비스운영-디자인편집
Pre Production	소재조사 Object Research	유형 무형 유물정보 수집, 답사 Object, Key-word, Key-men, discovery & audience
	창의발상 Ideation	Basic Ideation, Visual Thinking / object, media, contents, platform, marketing
	벤치마킹 Bench-marking	국내외 최고사례 What(object & product), How(produce & process), Who(user)
	개념설계 Concept Design	가치-주제-개념-카피 Value Chain, Concept, Theme, Copy
	기본계획 Master-plan	비전- 목표- 계획 Vision, Goal, Plan, Methodology
	이야기라인 Story-telling	스토리라인, 공간연출프로그램 Set(time & space), Character, Plot(event), Item, Program
	세부연출 Detail Production	전시연출총괄표 Contents, Miniature, Interior, Graphic, Media, Platform, System
	공간연출 Space-telling	조닝, Zoning, 동선 Line of flow,
	그림설계 Story-drawing	제안도면 설계 plan drawing 평면도(plane drawing), 입면도, 배치도, 투시도(perspective drawing)
	예산산출 Compilation of the Budget	Resource(Product)-Function(People)-Time(Process) List, man-per-time, Organization, Budget(개략견적-상세견적-최종견적)
	도서작성 Book Edit	Page Lay-out, Copy, Illustration, Diagram(개념도), 3D Modeling, 2D Graphic, Design, Edit Proposal
	발표평가 Presentation	PT Lay-out, PT Scenario, PT Design, PT Rehearsal
Production	사전제작 Prototyping	Prototype Plan, Prototyping, Feedback
	실시 설계 execution drawing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방서, 작업지시서
	시공 construction	조경, 건축, 인테리어, 전시 착공-시공-시운전-준공검사
	전시 Exhibition	개관행사
Post Production	운영홍보 Brand-management	Management, Branding, Promotion, Mia(Museum Information Architecture),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전시 4요소 : 질문의 출발점

내용전문가, 콘텐츠전문가, 건축전문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김만덕 삶과 정신
을 보여주는 소재
(Object)는 준비되
어 있는가?



김만덕기념관은
기억의 건축(기능-
상징)인가?

김만덕기념관에
주어진 시간(내용-
형식)은?

김만덕기념관의 핵심관람자는 누구인가?

Ⅱ 전시 소재 - 유형 및 무형정보

1차 자료 - 의인 김만덕 (1739-1812)은 어떤 인물인가?

❖ 역사 사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구묘비문, 다산시문집, 탐라지, 탐라기년,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탐라지, 제주도수필, 탐라실록, 제주도지, 제주시30년사, 구좌읍지, 북제주군지, 제주선현지, 제주사인명사전

❖ 인물전류

채제공 만덕전, 이재채 만덕전, 심노송 만덕전, 유재건 만덕, 조수삼 만덕, 정비석 제주기 만덕, 김태능 김만덕전, 이전문 제주의 첫 여상인 만덕, 양중해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음.

❖ 전기 - 큰 손

- 고난(苦難) - 고난의 어린 시절, 교방의 기적.
- 거상(巨商) - 육지 섬 무역 객주, 농축산업.
- 구휼(救恤) - 1794년 대흥년 육지양곡으로 제주민 구제
- 유산(遊山) - 정조대왕 금강산 기행
- 의녀반수(醫女班首) - 임금 알현, 표창

→ 전형적인 '성장' 플롯의 입지전적 인물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 제282호
(충남대 윤허환교수)

2. 문화유적 - 만덕관(김만덕 기념관)과 그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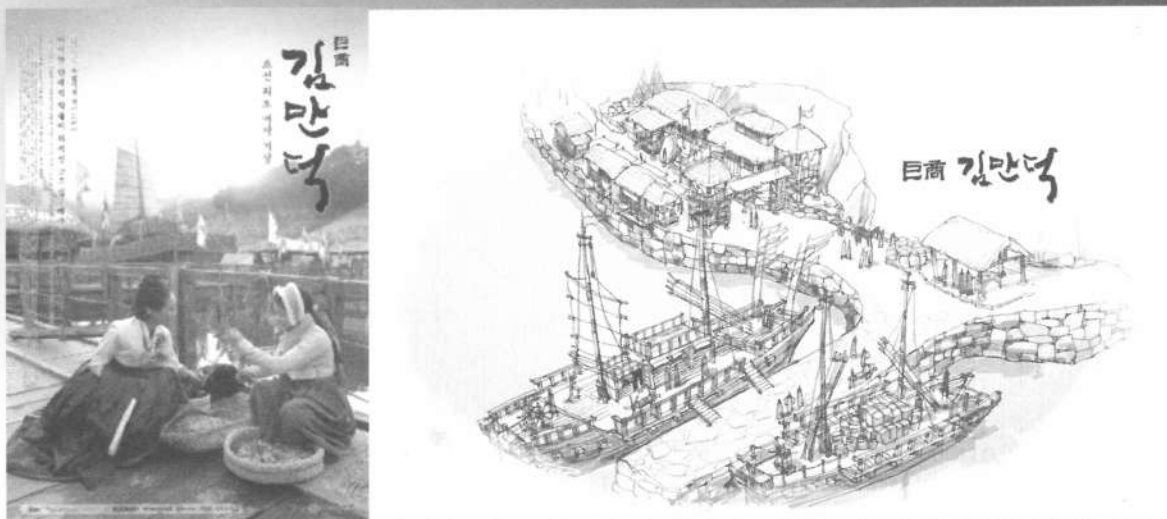
- 제주시 건입동 387-4 (모충사 내)
- 개관일 : 1977년 건축, 2000년 4월 1일 개관
- 건물규모 : 약 50여 평 (지상1층)
- 유적 목록 : 김만덕의인묘, 구묘비-동자석-망주석, 은광연세 석각
- 전시물품 : 영정, 혼례복-베들 외 민기류 23점, 일대기 그림 8점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



3. 산지천과 객주터 - 18세기 무역항과 장터거리는 어떤 모습인가?



4. 2차 자료 - 문학, 설화, 콘텐츠 등 인물사에 집중!

❖ 기타 자료

- 진성기 만덕할망, 추사 김정희 '은광연세' 목판판액, 홍상문화백의 김만덕 영정, 양중해 작시·고봉식 작곡의 「김만덕 노래」, 묘탑 등

❖ 콘텐츠

- 드라마 정화(1978), 거상 김만덕(2010), 역사스페셜

❖ 연구자료

-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수



→ 연구 및 문헌자료 중심 자료 구성

→ 방송콘텐츠 팩션스토리텔링

김만덕 전시 소재의 발상 전환

• 소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발상 필요

- 질문1: (상업) 당시 제주 무역 상업의 실상은?
- 질문2: (CEO) 조선시대 다른 여성CEO는 없었는가?
- 질문3: (기부) 조선시대 기부 자선문화 모습은?
- 질문3: (기행) 금강산 기행, 유산기는 없나?
- 질문4: (비교) 동북아 유가 상인들과의 비교는?
- 질문5: (복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 자료 형식의 다양화를 통한 접근

- 유형자료에서 무형자료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유형적 / 무형적 자료(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 아카이브 필요성
- 역사사료를 명확히 이해 반영한 위인스토리텔링 요구



상인의 신
호설암

유상(儒商)
오사카상인

소재(Object), 유형자료에서 무형자료로

스토리	원형 자원	
무대 SET	자연지리	전경 Landscape
	생물생명	생물 biology
	건조물	건축 Architecture
배역 CHARACTER	인물	인물 Human
	직업	직업 Job
소품 ITEM	소품	소도구 props
	의식주	생활 Lifestyle
사건 EVENT	예술	예술 Art
	제도	의례 Rite
	사건	이야기 story
주제 theme	사상	관념 Idea

아브라함 링컨 도서관 겸 박물관 Abraham Lincoln President Library & Museum

- 위치 :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소재
- 개관 : 2005년 4월
- 규모 : 전시면적 100여 평
- 미국 16대 대통령을 아브리함 링컨을 기리기 위한 도서관 겸 박물관.
- 링컨 인생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사진, 기록물, 공예품 등 다양한 유물. 생가와 백악관 실물 크기 모형, 링컨 서명 노예해방선언문, 메리 링컨의 물품.
- 마차바퀴형 전시관 배치, 주요한 사건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등신 밀랍인형, 헐리우드 특수효과를 살린 특수극장, 홀로그램 전시
- 충분한 조사연구, 체험교육 조화

→ 위인 기념관의 새롭고 모범적인 전시 사례



Ⅲ 건립 조건 - 예산과 공간

건립사업개요 분석

- 사업기간 : 2011 ~ 2014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
- 사업량 : 건축연면적 2,808㎡
(약 900평, 지상 3층)
* 야외 면적? 객주터 복원 연계!
- 총사업비 : 15,252백만원
(국비 4,004, 지방비 11,248)
- 건축 약 100억 원, 전시 약 50억 원
* 평당 전시콘텐츠 예산의 결정력!
- 기능 요구 : 전시, 교육, 체험
복합문화체험공간
* 핵심 목표와 비전 - 기능과의 부합성



제주 여인, 해녀 할망

시간 요소 분석

❖ 사업기간 : 2011 ~ 2014

- 2010년 : 김만덕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제주발전연구원)
- 2011년 : 김만덕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2012년 : 김만덕 건립 변경 부지 확정(금산생태공원 앞)
- 2013년 : 김만덕기념관 건축 현상설계 경기
- 차후 일정 : '13. 11월 실시설계 완료, 12월 착공, '14. 하반기 완공

❖ 건립 소요 기간

- 국내사례 : 대부분 5년 이내(대한민국역사박물관 : 2009 - 2014년)
-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도서관 겸 기념관(2005.)
 - 준비 : 일리노이 역사보존국 자료 수집 및 설계 방향 정립 25년간 진행
 - 운영 :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도서관재단

→ 건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진화형 박물관' 개념 필요



제주시 삼성혈 권역과 대상지 연계 제주 정체성



→ 연계 : 탐라문화광장, 금산생태공원, 목관아지 등 연계 관광 인프라

김만덕기념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2013. 8.19. 당선작 확정

업체 : (주)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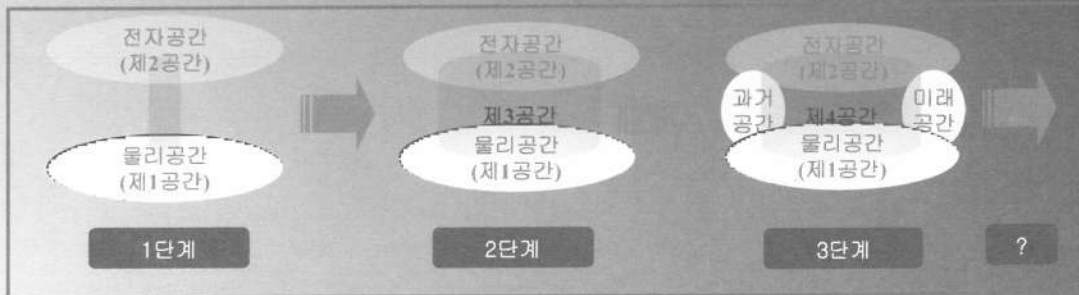
컨셉 : 자연, 사람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함께 하는 전시관(傳施館)

규모 : 지상 3층 2,800㎡ 총 사업비 100억 원

구성 : 전시관, 기아체험관, 나눔교육관, 나눔광장, 야외공연장, 김만덕 객주터(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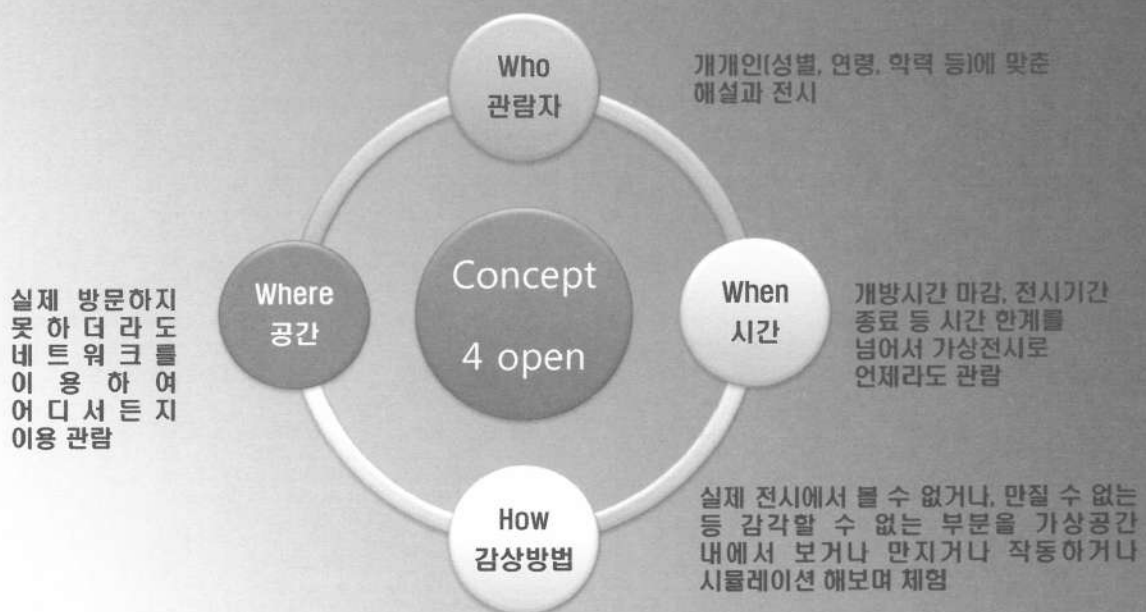
→ 전시 공간 구성에 대한 발상 필요성

전시공간 - 4대 공간 융합 전략을 세우자



- 물리공간(Physical-space) : 전시 공간, 유물, 관람자 환경.
 - 전자공간(Electric-space) : 박물관홈페이지, 사이버뮤지엄, 온라인콘텐츠.
 - 유비쿼터스공간(Ubiquitous-space) : 공간, 센서, 모바일콘텐츠, 개인화기기.
 - 사용자체험공간(eXperience-space) : 관람자 스토리텔링체험 공간
- 900평짜리 박물관이 아니라 4대 공간을 융합한 신개념 개인화 디지털박물관
→ 박물관 기획 설계시, 4대 공간의 콘텐츠를 통합 설계할 필요성

디지털박물관 - 기존 박물관의 4가지 한계 열기



개인 맞춤형 박물관 Personal Museum 목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

안동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컨셉

디지털 콘텐츠 박물관 (Digital Contents Museum)

실제 문화유산을 전시하지 않고
최첨단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전통문화의 가치와 내용을 체험

에듀테인먼트 박물관 (Edutainment Museum)

영상물 통해 교육+정보+교류
+오락+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가치 체화

안동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인터랙티브 체험 박물관 (Interactive Experience Museum)

문화유산의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관람객이 상호
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체험

유비쿼터스 박물관 (Ubiquitous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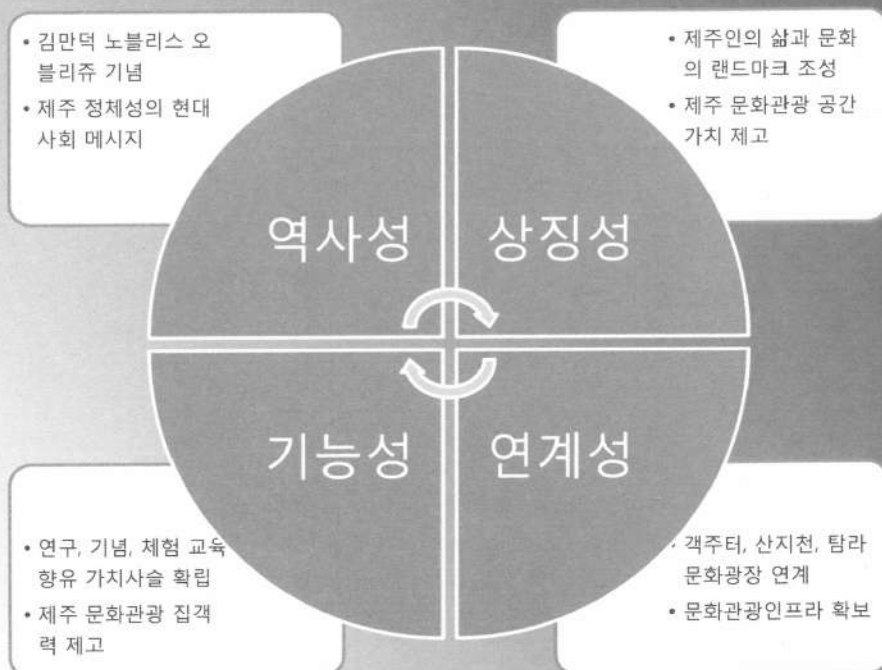
기존 오프라인 박물관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쌍방향 - 맞춤형 - 진화형 3대 스마트 전시 실현할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부재!



IV 전시 요구 - 발주처와 관람자

건립 기본 방향 - 제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표적 시장과 목표 관람자는? - 문화 주도 트렌드 대비

• 대상 지역 전략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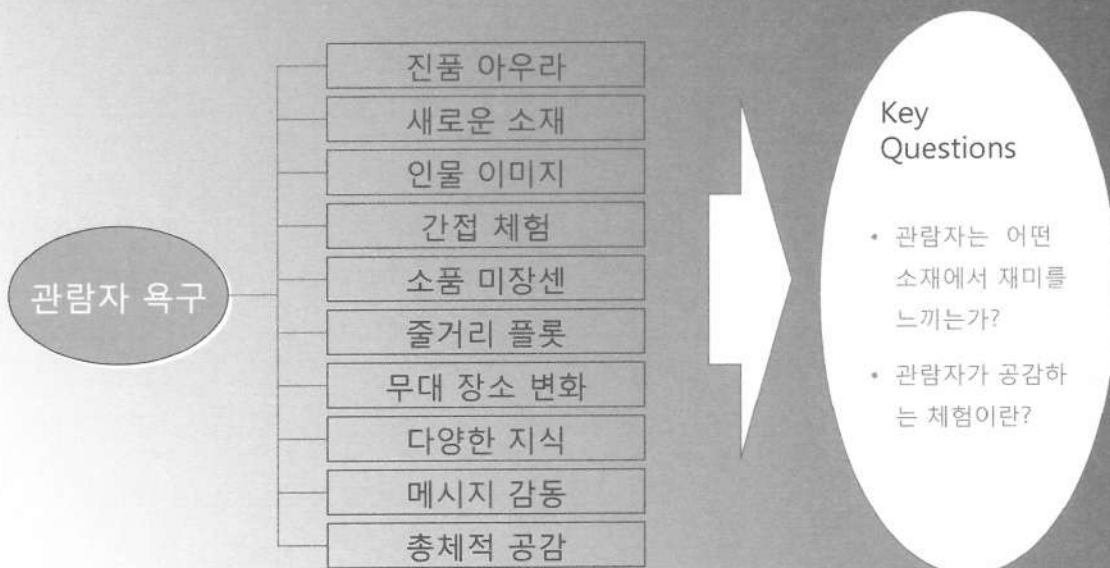
- 제주도 : 지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의 건립의 최우선 과제(70%)
 - 타시도 : 타시도는 차선의 목표(20%)
 - 외 국 : 해외방문자 접근성 해소 목표(10%)
- 지역민이 제일 먼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 목표 관람자는?

- 개인화와 핵가족화 추세
 - 3키맨(Key-man : Kids - Woman - Silver) 주도
- 수동적 단체 관람자가 아닌 테마연수
 - 기부 자선 기반 특수 테마연수 프로그램 요구
- 전문연구자와 오피니언리더 네트워크 허브
 - 김만덕정보의 총괄적인 검색, 열람, 교류, 보급 원스탑 서비스

→ 관람자별 다양한 요구를 기능으로 수용 다중 목표 관람자 콘텐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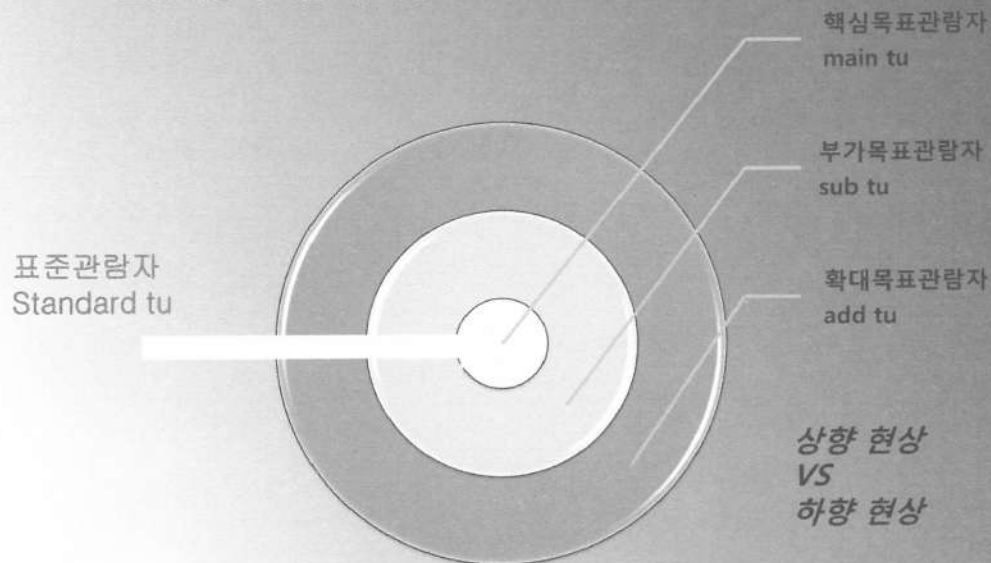
관람자 체험요구 요소



* 관람자 체험의 6대 요소(오감 - 패턴 - 문자 - 정보 - 관계 - 행위) : 브렌다 로렐

목표사용자(Target User)?

표준사용자이론 대 사용자확장다이아그램



건립 기능 분석 - 공간 구획이 아닌 가치사슬 순환체계 구축이 우선

• 연구 보급

- 연구1 : 의인 김만덕 자료 조사, 수집, 연구, 보존, 복원
- 연구2 : 기부자선 실천 세계적 인물 조사, 수집, 전시
- 보급1 : 의인 김만덕 정신 주제별 출판 및 강연
- 보급2 : 관련 학회 협동 연구 / 국내·외 세미나 개최

• 전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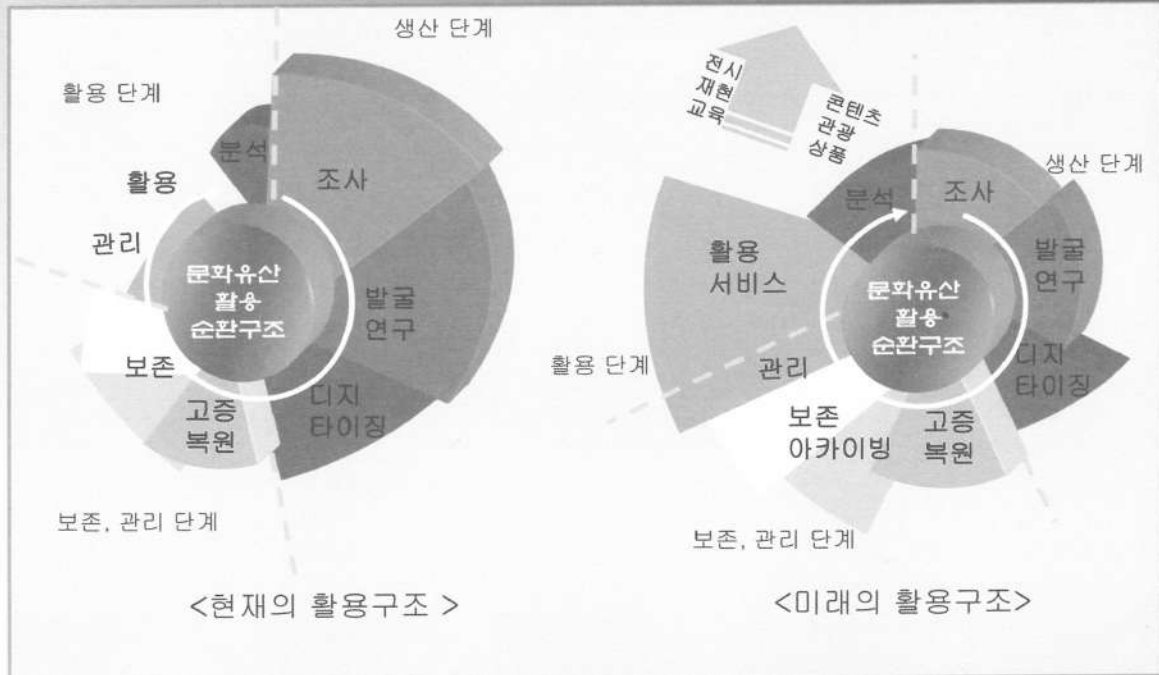
- 상설전시 : 의인 김만덕 국내·외 의인의 유물 및 자료 전
- 기획전시 : 국내외 기부자선문화 + 상업문화
- 기아체험관 : Dark Experience 효과?
- 야외공연장, 김만덕 객주터

• 교육 연수

- 종합자료센터 : 전문가 일반인 자료 열람 및 보급
- 나눔교육관 : 학생, 일반인, 기업인 테마 연수 기능
- 어린이 도서관
- 나눔광장 : 야외 주제활동 공간
- 기타 : 커뮤니티, 휴게



문화유산 활용과정



기능 융복합 - 김만덕 정신 기념 라키비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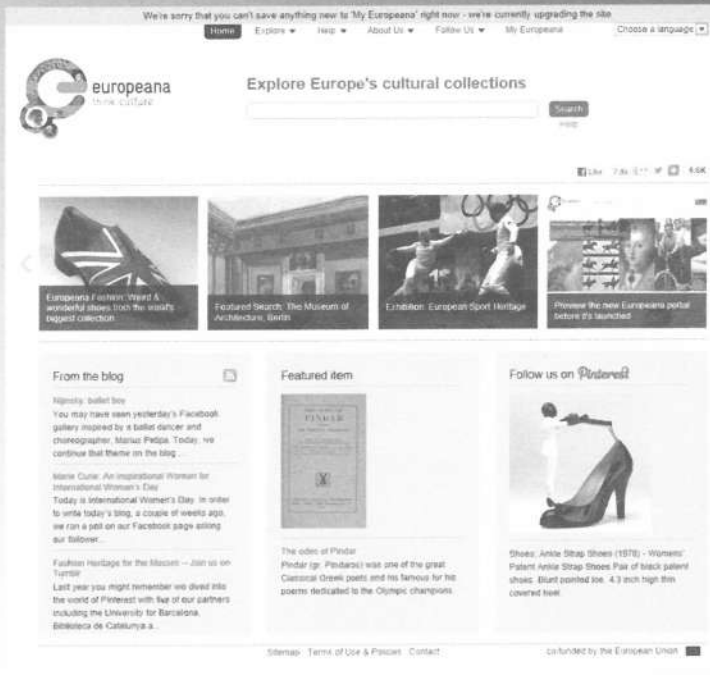
• 세계기부문화정보 HUB!



❖ Larchiveum (Library+Archive+Museum)

- 이 Library Journal 2008.7.30, 디지털 기반 정보소통교육의 공간 융합
-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만동 경복궁문화원초진흥원, 상대문화관 기본전략 등 사실 적용.

Eropean 유럽연합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Think Culture!



유럽디지털도서관(E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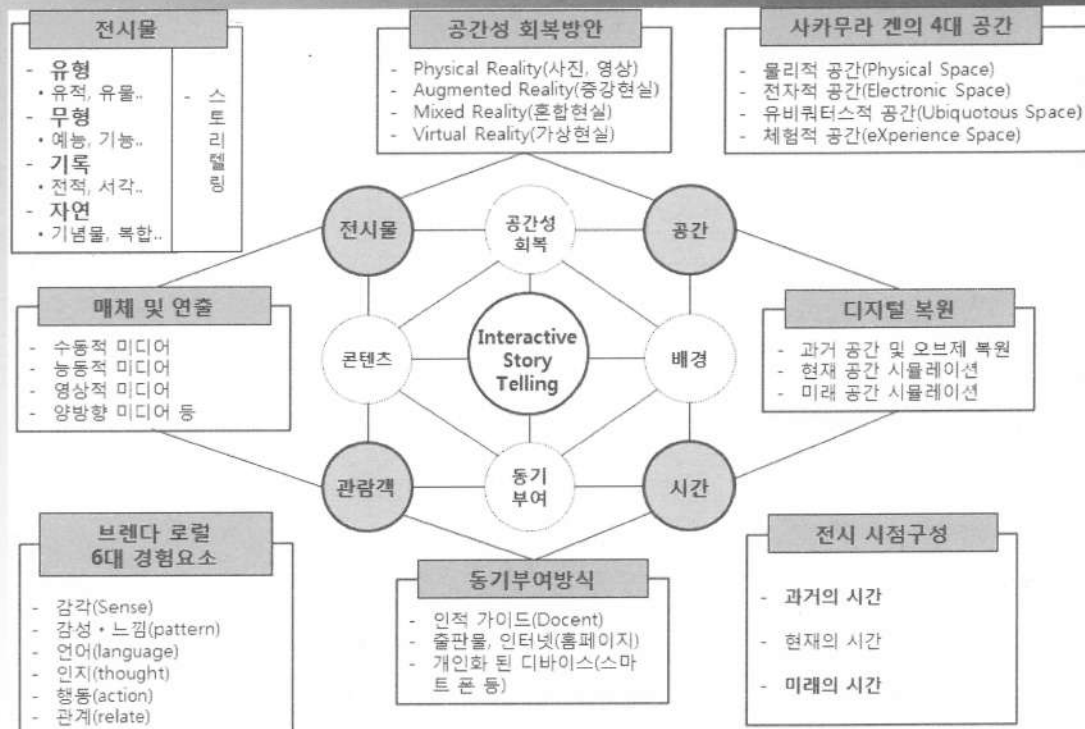
www.europeana.eu

개념 : 분산형 도서관 개념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주관 : 유럽 정보사회 위원회 European
Commision 2008.11.20.
자료 : 프랑스 국립도서관, 루브르박물관,
대영박물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등
1000개 이상 유럽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정보
회귀자료 : 단테 신곡, 베토벤과 모차르트
차필 작곡 원본
정보 : 200만 건 정보, 공유저작물
서비스 : 25개국 언어 자동번역 시스템,
온라인 무료 서비스

→ 세계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카이브
→ 상업교통문화 > 기부자본문화

V 남은 문제

전시 4대 요소의 확장 - 김만덕 정신과 삶의 콘텐츠화를 위한 개념 제안



남은 문제 - 기술이 아니라 기초를 다져야 한다

전시소재, 전문연구 기반 무형정보(정신과 행위) 스토리텔링

전시조건, 아날로그 체험을 강화하는 스마트전시 전략

관람자, 지역민 애정과 정체성 공유 최우선 커뮤니티 구축

전시기능, 기능 융합을 통한 라키비움형 가치사슬 구조 개발

- 소재, 컨셉, 스토리텔링, 매체, 기술 등 소재분석부터 실시설계까지 단계별 심화 검토가 필요하다
- 하늘 아래 하나뿐인 김만덕기념관을 건설하려면,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내용, 콘텐츠, 건축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체가 출발점이다



발 표

**‘세계 자선운동계의 거장들과 김만덕
- 그들은 어떻게 자선의 리더가 됐나’**

이 미 숙

(문화일보 국제부 부장)

‘세계 자선운동계의 거장들과 김만덕 -그들은 어떻게 자선의 리더가 됐나’

이 미 숙(문화일보 국제부장) *

1. 영정르네상스시대를 빛낸 나눔의 별 김만덕 여사

한국에서 나눔 운동을 얘기할 때, 경주 최부자집을 자주 언급하는데 최부자집의 자선은 17세기부터 일제 말 1950년대까지 근 300년을 내려온 최씨 가문의 집단적 얘기다. 어느 한사람이 부각된다기보다 최부자집의 나눔 철학과 선조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반면 김만덕 여사의 나눔은 조선후기인 18~19세기 영정시대, 그것도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 거장의 얘기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초중고 교과서에도 소개됐듯이 김만덕 여사는(金萬德, 1739~1812년/ 영조 15년~순조 13년)은 제주의 상인이자 자선사업가다.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치자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사온 쌀을 모두 진흙미로 기부하여 빈사상태의 제주도 백성들을 구제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중개상인 김응열의 딸로 태어나 12세 때 고아가 됐고 기녀의 집에서 양육되어 어른이 된 후 객주(客主)를 차려 제주 특산물인 굴, 미역과 육지의 옷감 등을 교역하며 재산을 모았다. 1793년 제주도에서 600여 명이나 아사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계속되자 1795년 김만덕은 전 재산을 풀어 쌀 500여 석을 샀고 이중 450여 석을 모두 구호식량으로 기부해 제주도민들을 구했다. 그때 김만덕의 나이 56세 때다. 정조대왕은 전 재산을 풀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만덕을 칭찬하며 벼슬을 내려 선행에 보답했다고 전해져온다.

*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역임.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저서로 ‘자선으로 리더하라’, ‘슈퍼글로벌 리더가 세상을 움직인다’, ‘존경받는 부자들’ 등이 있음.

김만덕의 자선은 18세기 후반에 이뤄진 것으로 자선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미국보다도 앞서있다는게 특징이다. 자선의 명가로 불리는 존 D록펠러나 앤드류 카네기는 모두 20세기 들어 활동을 한 자선가다. 김만덕의 자선활동 시기는 미국의 자선 거장보다 무려 100여년이 앞선 것이다. 김만덕 자선의 핵심키워드는 (1)유년시절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이자, (2)싱글 여성 상인이며, (3)자선방식은 국가가 해결 못하는 기아사태에 개인이 전 재산을 투입, 구호식량을 조달한 통 큰 자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서구의 자선사업이 형성되기 전의 선구적 형태로서 김만덕 나눔사상이 얼마나 시대에 앞선 것인지 드러내준다. 지난해가 김만덕 별세 200주년인데, 그의 자선동력은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에 대한 동정심compassion에서 출발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김만덕 이후의 자선

(1) ‘경주 최부잣집’의 나눔 (17~20세기)

영남 만석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경주 최부잣집은 300여 년간 12대를 이어간 부자로도 유명하다. 부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큰데 경주 최부잣집의 가르침은 ①‘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②‘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③‘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④‘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⑤‘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⑥‘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는 ‘육훈(六訓)’으로 정리된다. 최부자 집은 1대 최진립(1568~1636), 2대 최동량 등을 거치며 재산이 형성됐고, 부자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최국선(1631~1681) 때다. 당시 8할이던 소작료를 5할로 내리면서부터 나눔을 실천한 부자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언경(1743~1804)은 남강서당을 운영했고 마지막 최부자로 꼽히는 최준(1884~1970)은 백산무역을 운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줄 역할을 했고 해방 후 1947년 대구대를 설립하며 재산을 기부했다.

(2) 현대가와 삼성가의 나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62세 되던 해인 1975년 아산재단 설립했다. 당시 현대건설주식 절반을 내놓아 500억 원을 종자돈으로 시작했다. 당시 박정희정권이 기업공개를 압박하자 주식을 내다 팔지 않고 병들어도 병원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며 설립한 게 아산재단이다. 이후 아산재단기금은 점점 불어나 7000억 원 규모의 사회재단이 됐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아산재단 설립당시 “미국의 록펠러재단이나 포드재단에 버금가는 재단으로 성장시키는 게 내 꿈”이라고 밝혀 록펠러재단이 벤치마킹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산재단의 초기 사업은 록펠러재단의 초기와 유사하다. 존 D 록펠러처럼 정주영 명예회장도 의료, 사회복지, 연구개발, 장학 등 4개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세운 뒤 의료취약지구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일가 및 계열사들과 함께 5000억 원을 기부, 아산 나눔 재단을 만들었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5000억 원을 기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만들며 나눔 운동을 활성화 하였다.

삼성의 경우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 대표적이다. 삼성의 오너들이 8,000억 원을 출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인데 2002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300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00억 원, 여기에 삼성 계열사가 2,100억 원을 공동출연하면서 만들어졌다. 2006년 5월 이회장의 일가가 1,300억 원을 추가출연하고 이회장의 3녀인 이윤형 씨의 주식 보유분 2,200억 원이 보태지면서 총 8,000억 원 규모의 거대 재단이 됐다. 이후 삼성 꿈장학재단으로 이름 바뀌서 활동 중이다.

현대와 삼성만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삼영화학 설립자인 관정 이종환 재단도 주목할 만하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2010년 삼영화학그룹 이종환(90) 회장이 사재 65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개인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는 국내 최대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2000년 10억 원의 기금으로 출발, 2002년 기본자산이 3000억 원이 됐고, 2007년 총 6000억 원으로 기본자산이 늘어났고, 2011년 현재 6500억 원이다. 매년 150억 원을 장학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최우수 인재를 뽑아 최고로 키우기 위해 과감히 지원한다’는 장학철학에 따라 2002년 국내 장학생 286명, 해외 유학생 99명을 선발한 후 이후 매년 200명 안팎의 국내 장학생과 100명 안팎의 해외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3. 미국의 자선가들, 그들이 자선사업에 나선 이유

미국의 대표적 자선사업가는 존 D 록펠러와 앤드류 카네기(1835~1919)다. 20세기 초 미국 자선업계의 양대 산맥을 구축해왔던 이들의 전통은 최근들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이츠와 버핏은 2009년부터 "살아생전에 절반의 재산을 기부하자"는 기부서약(Giving Pledge)운동을 펴고 있는데 2012년 12월 현재 92명의 슈퍼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기부하라는 카네기의 쩡쩡한 목소리는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자선 문화의 저류를 흐르는 불멸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나눔 운동을 이끌어온 선구적 자선가들과 그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존 D 록펠러(1839~1937)

미국자선운동의 거목으로 꼽히는데 그가 만든 록펠러재단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19세기말 미국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미국언론들은 '유다의 키스다', '가진 자의 위선'이다 말이 많았는데 그런 여론에 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신조를 갖고 자기만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미국의 대표적 자선사업가로 기록됐다. 존 D 록펠러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로라 스펔먼 록펠러, 그들의 다섯 아들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재단을 만들어 록펠러가의 사람들만큼이나 재단수도 많다.

존 D 록펠러는 1913년 록펠러재단을 설립, 자산을 기부한데 이어 1937년 세상을 떠날 때 5억3천만 달러를 추가로 회사했다. 록펠러는 54세 되던 해 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자선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1937년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선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록펠러의 자선전통에서 두드러진 점은 존 D 록펠러의 부인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로라 스펔만 록펠러 기념재단은 1918년 만들어졌는데 록펠러가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 7400만 달러를 출연함으로써 시작됐다. 1929년 이후 이재단의 사업은 록펠러재단 사회과학분과에 의해 계승됐는데, 이 재단은 로라 여사가 관심 갖고 있던 여성과 아동지원에 집중했다.

로라 스펔만 록펠러의 아버지 스펔만은 인종차별반대주의자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인

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스펠만 컬리지를 세웠다. 이 대학은 미국 남부지역에서 흑인여성을 위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 됐다.

(2) 앤드류 카네기(1835~1919)

앤드류 카네기(1835-1919)는 우리나라에 강철왕 카네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기보다 자선사업가로 더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뒤 9살 때부터 생업전선에 나섰고 철강회사를 세워 큰돈을 번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그는 66세가 되던 1901년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J. P.모르건에 4억8천만 달러를 받고 매각한 뒤 자선사업가로서 제2의 생을 시작했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런 일”이라는 좌우명아래 현역기업인으로 일할 때 모은 재산을 은퇴 후 20년간 90%이상 자선사업에 쓰고 간 사람이다.

카네기의 자선사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보급운동도 40대중반에 시작한 일이다. 피츠버그시에서 도서관건립을 제의해오자, 만약 피츠버그 시정부가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고, 그것을 관리한다면, 도서관이라는 하드웨어를 무료로 지어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카네기는 카네기 인스티튜트(Carnegie Institute)라는 이름의 공립도서관을 미국에 2500개, 영국과 캐나다에 500개 건립, 무상 기증했다. 또한 그는 고향 스코틀랜드에 수영장을 지어주고, 교회에 울젠을 기증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4천여 개, 미국이외의 영어권 지역에 4천개의 울젠을 기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죽을 때까지 카네기가 자선사업에 투입한 액수는 5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0억 달러가 된다는 게 미국학자들의 얘기다. 그는 가족에게는 1500만 달러만을 남겨주었을 뿐이다. 부의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의 상속과정에서도 세금 한 톨 안내려하는 우리나라 재벌가의 세태와 비교해볼 때 전혀 딴 나라 얘기 같기만 하다.

카네기는 공식교육을 받은 바 없지만 독학을 통해 기업운영, 정치변화, 세계정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저서 ‘부의 복음’에서 “부자는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기관을 제공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권 국가에 3천개이상의 도서관을 지원한 카네기의 후원정신은 “사람들이 스

스로 노력할 수 있게 격려해줘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3) 빌 게이츠(58)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왕국을 건설한 빌 게이츠는 컴퓨터천재였을 뿐 자선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던 인물이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 MS가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다.

시애틀에서 평생 시민운동을 해온 그의 아버지 빌 게이츠 2세는 거부가 된 아들에게 “훌륭한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 적당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했고 이 결과 게이츠는 50대에 접어들어 자선사업가로 전환했다. 52세가 되던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서 물러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총괄하는 전업적 자선사업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록펠러 스타일로 아프리카 아시아 보건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가 제시해야 할 거창한 사업을 게이츠재단은 진행하고 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1994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창설됐는데 1999년 170억 달러를 출연한데 이어 계속 자산을 기부, 2012년 현재 게이츠재단의 자산은 356억 달러이다.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74개국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운동을 벌이고 있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예방백신을 최초로 개발하려는 노력 등을 펼치고 있다.

(4) 빌 클린턴(67) 전 미국대통령

빌 클린턴은 전 미국대통령을 지낸 후 나눔 운동에 뛰어든 전직 지도자다. 그는 자선에 대한 책 ‘기빙’(Giving)을 펴내면서 부제목을 ‘우리 각자의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How Each of Us Can Change the World)으로 정했다. 클린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을 기부해 세상을 바꾸자는 접근법을 쓰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 물건, 기술, 아이디어 등을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기빙’이란 책에서 “2001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나머지 생애의 시간과

돈, 기술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 거듭하다 클린턴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클린턴은 미국대통령으로 활동하며 얻은 지혜와 경험을 자선운동에 연결시켜 미국 자선사업을 혁신시킨 리더로 꼽힌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CGI라고 하는 회의는 매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집단, 지원을 하려는 기부자를 연결시켜 사업으로 만든 게 2,000여개 정도이며 돈으로 따지면 630억 달러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사람의 전직지도자가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적 예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발견하게 된다.

〈CGI 성과 2005~2012〉

- ◆ 1,600만 명이상의 여성이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 ◆ 1,0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소액대출을 받게 됐다.
- ◆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배우게 됐다.
- ◆ 200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게 됐다.
- ◆ 5,0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게 됐다.
- ◆ 40만 가구 이상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됐다.
- ◆ 7,500만 명의 산모와 신생아가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됐다.
- ◆ 2,000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게 됐다.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독특한 여성 지원운동을 펴고 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시절 2010년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석, “전 세계에서 매년 200만 명의 여성 및 소녀들이 조악한 화덕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화덕으로 인한 공기오염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제5대 요인”이라며 “여성들을 살리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화덕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엔재단을 주축으로 ‘깨끗한 화덕공급운동본부’가 마련됐다. 미 국무부는 2011년 9월 22일 ‘클린 쿡스토브 Clean Cook Stove를 위한 글로벌 연대’라는 다소 생소한 국제 비정부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가정에 깨끗한 조리용 화덕을 공급해 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결성된 비정부기구다. 1년 만에 20만개 깨끗한 화덕을 아프리카, 아시아

빈곤국가에 공급해 2020년까지 1억 개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매년 전 세계 200만 명 여성과 소녀들이 조악한 화덕으로 사망하던 통계가 사라지게 된다.

(5) 스티브 린튼(63) 유진벨 재단 회장

한국에서 인세반으로 불리는 그는 북한 결핵환자의 구세주로 불린다. 린튼 회장은 조선시대말기 전남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선교활동을 하던 유진 벨 선교사의 4대손이다. 린튼 회장의 아버지 휴 린튼은 벨 선교사의 딸인 사라가 윌리엄 린튼 선교사와 결혼해 낳은 셋째 아들이다. 린튼 회장에게 유진 벨 선교사는 외증조 할아버지인데, 4대가 구한말에서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시대의 한국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린튼 회장의 외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빈민구제와 선교활동에 집중했다면 린튼 회장은 북한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5년 컬럼비아대 교수시절, 식량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결핵환자들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매년 30억 원 정도 모금해 지원하는데 그러느라고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적 활동가로 나섰고, 지난 15년간 560억 원을 모금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60여 차례 이상 방북하며 돌봐온 결핵환자는 25만 명에 달한다. 매년 30억 원에 달하는 식량과 결핵약을 지원해 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북한의 수많은 결핵환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됐다.

4. 나눔, 왜 하는가

- ▶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 (김만덕, 앤드류 카네기, 스티브 린튼)
- ▶ 종교적 소명감. (존 D 록펠러)
- ▶ 동시대인들에 대한 소명감 때문. (스티브 린튼, 정주영, 삼성 이진희일가)

- ▶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빌 클린턴, 조지 소로스)
 - ▶ 사회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꿈꿨던 것 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자산을 갖게되는데 대해 감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 ▶ 개인의 실존적 체험에 따른 나눔. (박완서)
- *박완서 선생의 경우 사후에 모교인 서울대에 13억원을 인문학 지원기금으로 제공.

5. 김만덕 나눔 정신 계승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요즘 한국사회는 김만덕이 살았던 17~18세기만큼이나 격변기다. 빈부격차도 점점 심해져 1대 99사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자선의 이유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혼자 잘사는 것만을 추구하다보면 나 자신의 행복은 물론 사회자체도 불안에 빠지는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추구하다보면 나 자신은 물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나눔 활동이 필요해진다.

자선재단은 한 사회의 저수지 같은 곳이다. 록펠러가 거액을 회사해 록펠러 재단을 만든 게 1913년인데 당시 미국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고 사회적 불안도 상당했던 시기이다. 록펠러는 재단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올해 록펠러 재단 창설 100주년인데 지난 100년 만에 록펠러재단의 대의에 공감하는 자선재단이 11만개로 늘어났고, 총 자산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록펠러 재단은 미국사회가 부패하지 않는 소금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이후 수많은 자선재단이 미국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선재단은 가뭄을 대비하는 사회적 저수지 같은 존재다. 18~19세기 김만덕이 사회적 구휼활동에 투신한 것처럼 이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나눔과 자선활동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 영정 르네상스시대를 살았던 자선의 여장부 김만덕은 이제 제주의 김만덕에서 벗어나 한국의 김만덕, 나아가 한국 근대 르네상스시대의 나눔 운동 모델을 제시한 세계의 김만덕으로 재조명되며, 그 정신이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제언 - 김만덕 기념관에 대한 구상

근대 한국의 자선운동을 낳은 여장부 김만덕의 나눔사상을 조망하기 위해 건립되는 김만덕 기념관에는 김만덕의 자선으로 시작되는 한국의 자선운동계보, 나아가 세계의 자선가들의 활동관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것은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갖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하다.

한국자선운동에는 경주 최부자집의 활동사를 비롯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 시작되어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및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현대 일가로 이어지는 자선활동사, 그리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자선재단 활동 등이 곁들여지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글로벌 나눔운동관에는 미국 자선운동의 원조 존 D 록펠러와 앤드류 카네기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벌이는 글로벌 나눔 운동사례가 다양하게 전시되면 김만덕 나눔사상을 글로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자선에 대한 수많은 명사들의 금언들도 제시하면 나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선에 대한 금언들

◇ 앤드류 카네기

=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라”

◇ 존 D 록펠러

= “나는 신으로부터 돈을 벌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내 의무이며, 더 많은 돈을 주위사람들에게 양심이 명하는 대로 써야한다”

◇ 윈스턴 처칠

= “우리는 우리가 버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 삶은 얼마나 기부하느냐에 의해 평가된다”

◇ 조지 소로스

= “자선활동이란 부유한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생각해봐야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다.”

◇ 빌 클린턴

= “누구든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Everyone can give something).

◇ 멜린다 게이츠

= “자선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다”(Philanthropy is very personal)

◇ 탈무드

=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부했느냐에 따라 가늠된다”

〈이미숙, ‘자선으로 리드하라’-존경받는 부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발 표

김만덕 콘텐츠의 교육방안 전략연구

김 정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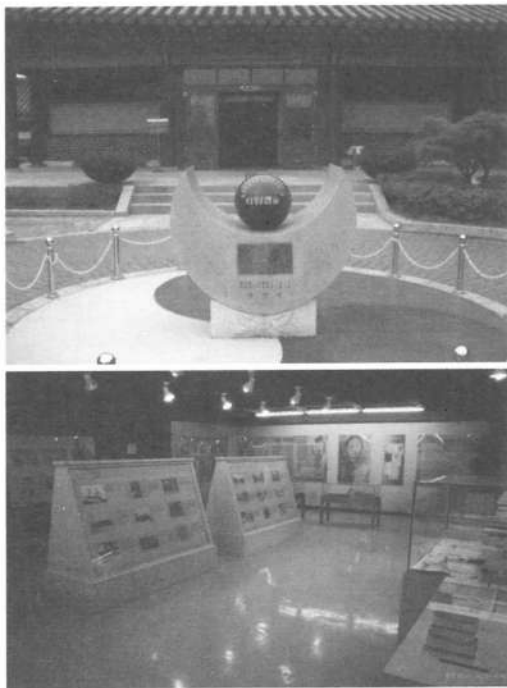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만덕 기념관의 콘텐츠 개발전략

김만덕 콘텐츠의 교육방안 전략연구

김정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기념관 이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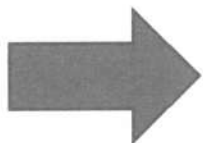


기념관이란 ?



기념관의 기능

- 김만덕 현양사업의 목적
 - 김만덕의 베품과 나눔정신을 계승. 발전
 - 김만덕의 구휼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본받고 실천
 - 역사 속의 제주여성 김만덕을 21세기의 인물로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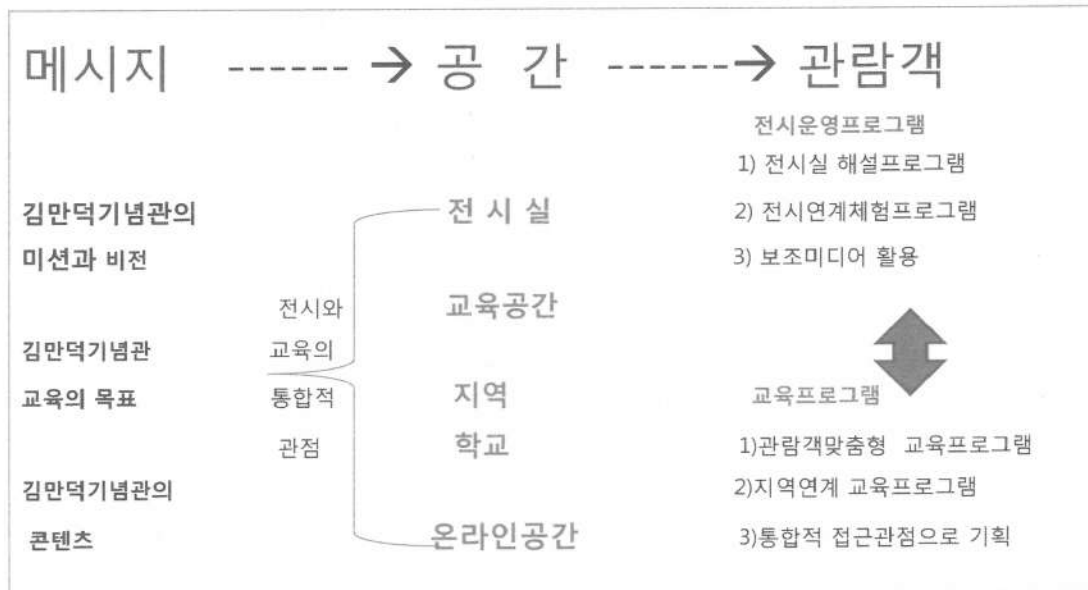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 학생, 학생단체, 가족, 어른,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전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 유아, 초·중·고등학교, 성인, 실버프로그램
- **장소별 프로그램 개발** : 전시장, 교육실, 야외, 지역사회 등
- **일정별 프로그램 개발** : 당일, 1박2일, 방학 프로그램 등
-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분야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교육 개념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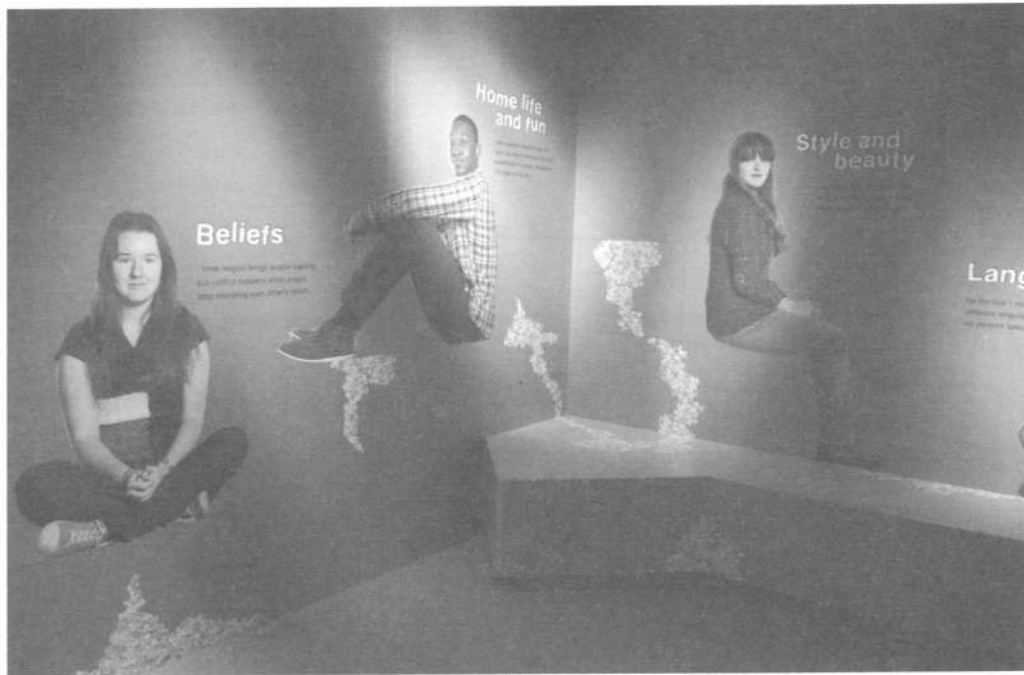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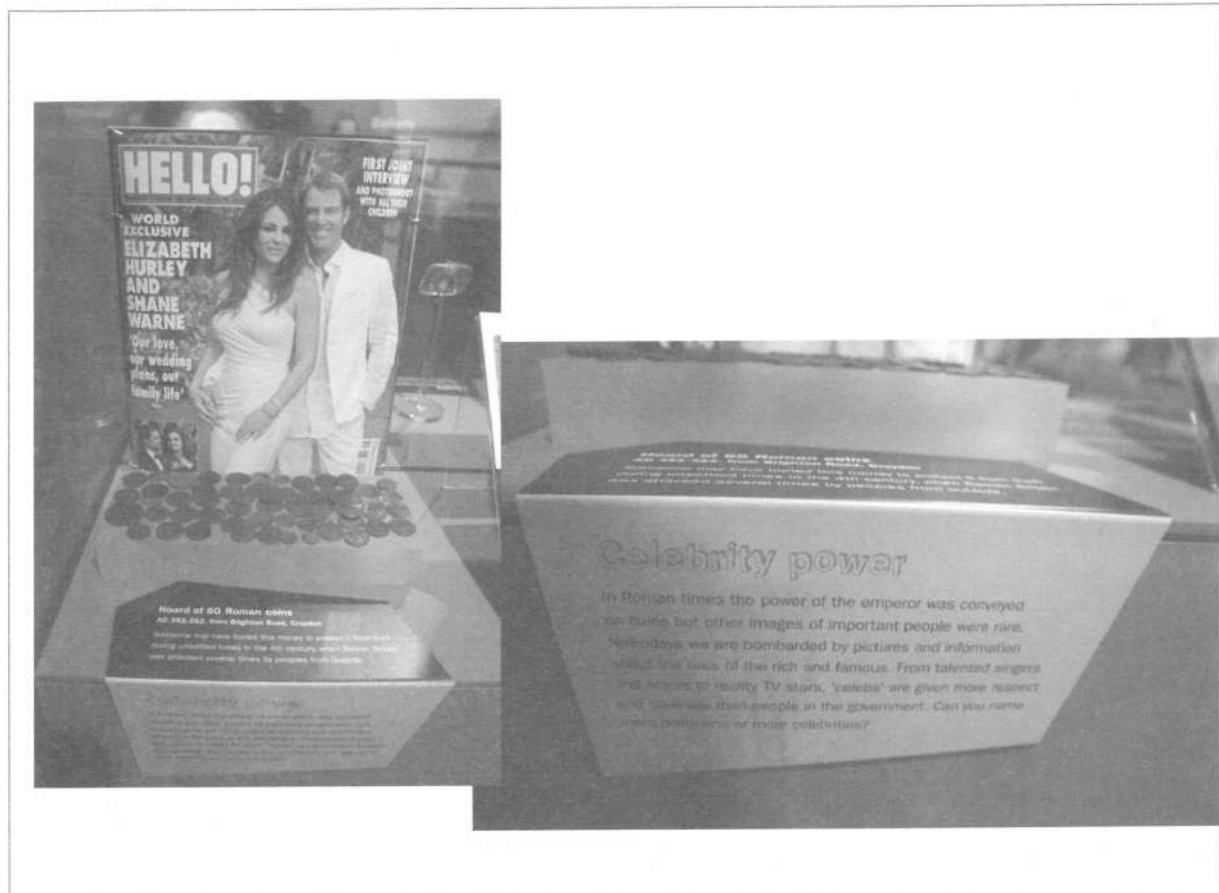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 전시콘텐츠와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치", "생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일회성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의 프로그램 '풀 구성'
- 참여자의 사전, 사후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 '자료구축'

시민과 함께 만든 전시콘텐츠: 가치발굴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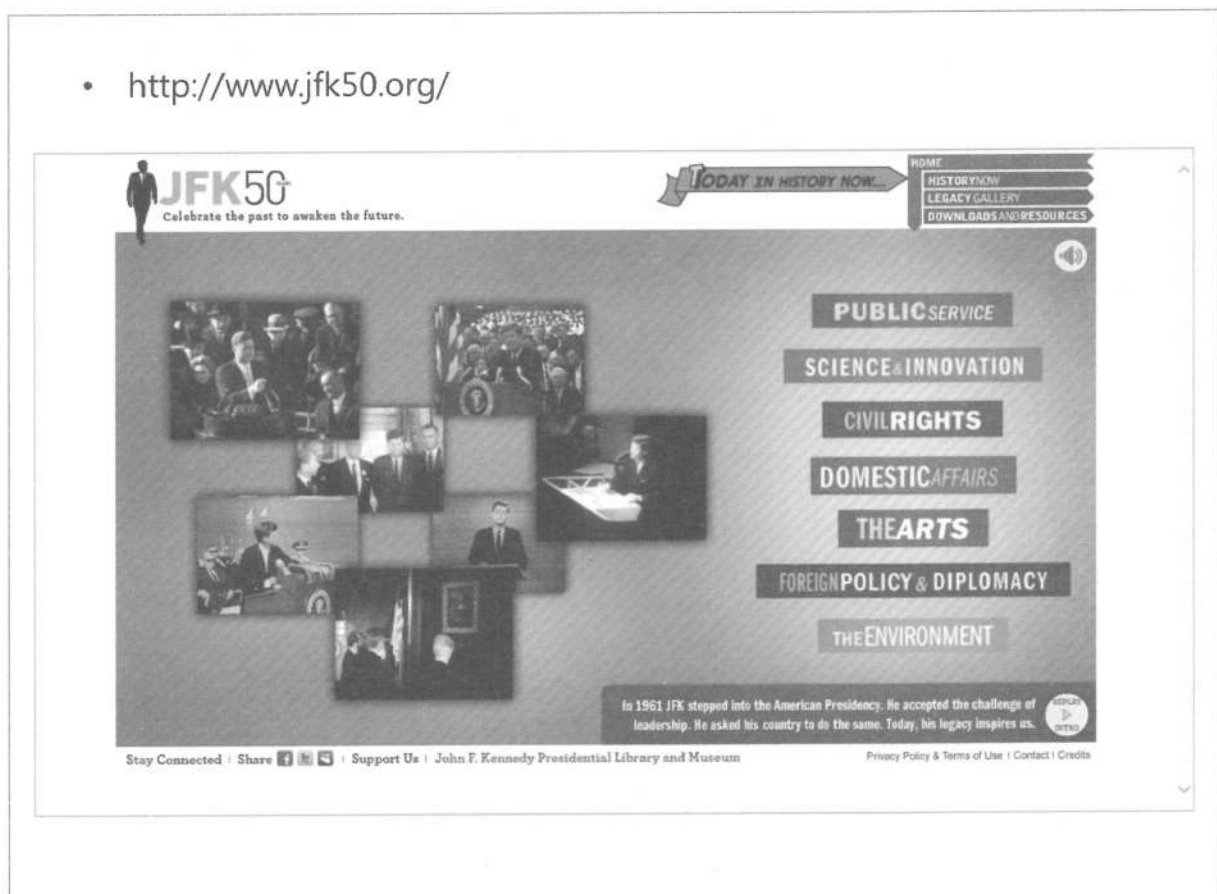








- <http://www.jfk50.org/>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념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념관



감사합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